



오늘의 날씨 | 맑음 | 기온 26℃/32℃

2017년 9월 22일 금요일 (음력 8월 22일)

기독일보

석간

www.christiandaily.co.kr



구독신청 02-722-8165

제 896호

“안보·한반도 평화 위해 한·미 공조와 협력 필요”

장신대 평화통일신학포럼서 윤영관 교수
강연 ‘한반도 평화·통일과 북핵 위기’

북핵·미사일로 말미암은 한반도 위기 상황에 대해 전문가는 어떻게 바라보고 그 해법은 무엇일까? 지난 21일 장신대에서 열린 평화통일신학포럼에서 윤영관 교수(서울대 명예교수, 전 외교부장관)는 “한반도 평화·통일과 북핵 위기”란 제목의 강연을 통해 한·미 동맹 강화 등 내외적인 총체적인 외교·안보 등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안보위기를 해소하고 한반도 평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와 튼튼한 공조 체제를 확립하고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협상을 통해 평화적인 문제해결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원 위기 상황의 본질과 도전 과제는? 윤영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적 이득을 국정의 최대 목표로 삼았기에 속내로는 한미동맹에 대한 애착이 이전 미국 대통령들보다 약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필요하다면 한국의 이익을 강대국 간의 거래 사이에서 희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키신저(Kissinger) 전 국무장관이나 엘리슨(Graham Allison) 교수 등이 주장하는 미중 대타협을 모색할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대비책을 세워 놓고 한국의 이익과 안보가 희생당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교수는 “북한의 핵미사일기술이 급속하게 발달했고, 따라서 미국 행정부는 ICBM이 실전 배치되기 이전, 즉 1년 이내에 다급하게 대북협상을 타결 지으려 할 것”이라 밝힌 후, “그 타결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이며, 타결이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무력충돌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면서 “협상이 시작되는 경우, 북한 소유 핵탄두는 계속 보유하도록 인정해주되, 더 이상의 핵과 미사일 활동을 동결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하고 완전히 비핵화는 장기목표로 추진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그는 이것이 “한반도에서 고조된 긴장을 해소한다는 면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는 했지만, “북한을 실질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결과가 되고, 북한이 심도 깊은 사찰을 거부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나아가 한국이나 일본이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 위험에 노출되어 버리는, 즉 핵을 소유한 북한의 포로가 되어버릴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했다. 더불어 “북한이 ICBM으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나 LA를 공격할 것을 각오하고서라도 북한의 대남 도발을 응징해주겠다는 확장억제의 약속을 과연 지켜줄 것인가에 대한 신뢰도가 약화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어떠한 대비책을 세울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한 과제로 등장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윤 교수는 “더 이상 미국의 확장억제를 믿지 못한다면, 고급 전략자산의 상시적 배치,

전술핵 배치, 자체적인 핵개발 등의 대응책들을 신중히 고려하고, 이를 통해 대북 억제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면서 “결과적으로 미국이 한반도에 대해 얼마만큼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지 테스트하는 시기가 급히 다가오고 있다”고 했다.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또는 북한 보유 핵을 잠정적으로 인정해주는 조건의 핵미사일 동결에 대해)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약화

를 감수할지 여부를 테스트하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고, 다시 말해 제2의 애치슨라인이 그어질 것인가 아난가가 판명되는 결정적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해결 방안은? 윤영관 교수는 “미국이 대중국 압박을 강화하면서 일종의 주고받는 식의 대타협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하고, “이를 통해 한반도에서의 중국의 이익을 보장해주면서 중국으로 하여금 원유 공급 중단, 더 강력한 무역제재 등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려 할 것”이라 봤다. 때문에 그는 “한국의 이익이 충분히 보장되는 선에서 미중 타협이 이루어지고, 이것을 기반으로 한·미·일·중·러 간의 국제적 연대를 형성하여 북한과 포괄적 타협을 이루어내야 한다”면서 “최대한으로 북한을 압박하되 동시에 최대한의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비핵화 하는 경우에도 김정은 정권이 스스로 생존하고 국내적 정통성을 확보할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윤 교수는 “한국이 이러한 방향으로 미중 타협, 한·미·일·중·러 간의 국제연대가 형성되도록 하는 적극적인 매개자 역할을 자임해야 한다”고 말하고,

“동시에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 하에 포괄적인 협상안을 만들어 이것이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지도록 적극적 역할을 시도해야 한다”면서 “이것이 바로 한국이 원하는 주도적인 역할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그는 “이 모든 것의 기초가 긴밀한 한미 간의 협력과 논의”라 지적하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 한국의 중요성을 각인시켜야 되고, 정상 간의 화학적 친밀도도 높여야 한다”면서 “동시에 대미 외교의 총력전을 펼쳐 미국 정부 내외의 모든 수준에서 맨투맨 방식으로 대미접촉을 강화하고 총체적인 네트워크를 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럴 때 미국에게 정확하게 한국의 입장을 전달하고, 미국의 의도를 사전에 파악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설득하여 모든 비핵화 협상에서 한국의 국익이나 안보가 철저히 보장되도록 할 수 있다고 주장한 윤 교수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운명이 강대국간 거래의 종속변수가 되는,

이른바 코리아페인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는 “지금은 초비상 시기로, 이때에 맞는 내부적 대응 자세와 외교 전술이 필요하다”면서

“무엇보다 외교·안보·남북관계·정보 담당 부처들 간에 메시지, 정책, 전략 등이 총체적으로 일사분란하게 검토되고 조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북핵으로 급변하는 동북아정세와 한국교회”란

주제로 3회를 맞이한 평화통일신학포럼에서는 윤 교수의 발표 외에도 윤덕룡 박사(한반도평화연구원 원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가 각각

“경제로 본 북한 핵 문제” “북한의 아태지역 내 핵미사일의 도발과 한미일의 대응” 등의 발표를 했다. 행사는 남북한 평화신학연구소(소장 고재길)가 주최했다.

홍은혜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반대했지 만..”

지난 21일 김명수 대법원장(58)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한국교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인준 투표가 진행 되기 전인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반대 집회를 진행했다. 강한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임명동의안이 통과됐지만, 향후 국정 운영에 있어 귀를 기울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날 국회 앞 기자회견 등은 '동성애·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이 주관했다.

박용국 기자

“한국 초기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한국교회 물질주의 불만 가질 것”

한국 순교자의 소리 본부서 한국교회 역사가 케네스 웰스 박사 독서강연회

외국인의 눈으로 바라본 한국교회 역사는 어떠한가? 과거 한국교회 '자기개조 민족주의'를 정의한 푸른논의 역사가가 한국 초기 기독교인들에 대한 자신의 독창적인 저서의 새 번역본의 일부를 독서강연회에서 읽고 강연할 예정이다.

한국교회 역사가인 케네스 웰스 박사(캔터베리대학 역사학 명예교수)는 자신의 저서이며 한국 초기 기독교 민족주의에 관한 책 “새 하나님, 새 민족” 새 번역본 일부를 오는 25일 저녁 7시 30분 ‘순교자의 소리’ 본부에서 소개한다. 그는 “조만식, 안창호 그분들이 지금의 한국 사회를 보면 자신들이 그토록 이루고자 했던 그 한국이 아니라 한국 기독교에 자기개조 민족주의가 필요한다고 여길 것”이라 주장한다.

웰스 박사는 “오늘날 남한의 개신교회가, 긍정적이고 개인 및 사회를 변화시키는 신앙으로서의 기독교를 세웠던 대단한 한국인들의 신념, 그들의 삶 및 태도로부터 멀어졌다”고 지적하고, “일부 한국인들이 근래 들어 안창호를 다시 발견하고 있는데, 그는 진정으로 뛰어났던 인물”이라며 “그와 그의 동료들은 자신들이 가지게 된 새 신앙의 교리와 영적 본질을 이해하고 반영하고자 진정으로 노력했다”고 전했다.

또 웰스 박사는 그들이 왜 조선이 이웃 나라의 속국이 될 만큼 약해졌는지 영적으로 깊이 이해했고, 조선인에 영적 회복이 필요함을, 그리고 그 영적 회복은 각 개인의 회복, 혹은 개조에서 시작된다는 데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면서 “그들

은 물질주의자가 아니었다”고 했다. 때문에 “현재 남한의 대개의 개신교인은 상당히 물질주의적”이라며 “오늘날 대부분 개신교인이 중시하는 것, 그 태도 및 행동에 대해 (안창호 등이) 불만스럽게 생각할 것”이라 이야기 했다.

웰스 박사는 개신교인 민족주의를 ‘자기개조 민족주의’라 칭한다. 그는 이 표현에 대해 “안창호, 윤치호 같은 분들이 쓴 말에서 따온 말”이라 밝히고, “1919년 안창호는 ‘개조’라는 제목 하의 연설에서 독립된 새 한국 문명을 창조하고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개조라고 했다”면서 “(안창호가) 개조는 각 사람이 할 일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웰스 박사는 자기개조 민족주의의 의미가 지금도 거의 완전히 잘못 이해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국에는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는 안창호가 일컬은 ‘유정’한 사회가 아니며, 여전히 여러 면에서 ‘무정’한 사회”라면서 자신의 주장이 한국 내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들에게 도전장을 걸 것이라 했다.

더불어 웰스 박사 “(안창호 등을 비롯한) 몇몇 기독교인이 결국 자신의 민족주의적 활동에 대한 개신교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개신교인들로 이뤄진 한 집단의 기록과 활동은 개신교가 적어도 자기 개조나 ‘윤리적’ 민족주의와 같은 민족주의의 한 흐름의 형성 과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그는 저서를 통해 두 가지 결론을 내린다. ▶개신교식 민족주의를 이끈 이들이 민족주의에 대한 그들 나름의 기반을 마련

했다 ▶그로 인해 그들이 불가피하게 주류가 쓰는 전략과 다른 전략을 갖게 되었고, 그로 인해 우익, 좌익 민족주의자들로부터 오해를 사게 됐다 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가 ‘저항’을 물질적으로만 생각하면 이는 오직 물질에 관한 용어로 이해한다. 그래서 민족주의적 저항이 머리에 떠오를 때, 당연히 신체적이고도 직접적인 정치적 행동, 상황이 허락한다면 무기를 사용하는 행동일 것으로 생각한다. 때문에 누군가 비폭력 혹은 영적 저항에 대해 말하면,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그런 저항도 아니지!’라고 생각한다. 웰스 박사는 “한국 민족주의 역사학의 경우 문제가 특히 심각한데, 그 이유는 비폭력적 전략을 일제에의 협조의 한 형태로 보기 때문”이라 했다.

웰스 박사는 “조만식이 취한 전략을 간디의 ‘satyagraha’에 비교할 수 있는 데,

한국 독자들은 조만식의 전략을 협조의 한 형태로 해석한다”고 말하고, “이러한 오해가 생기는 이유는, 대부분의 주요 한국어 사전에 satyagraha가 무저항 운동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이는 잘못된 번역인데, 간디가 영어로 이 말을 설명할 때, ‘civil resistance’ 즉, ‘시민의 저항’이라고 표현했으며, 이 저항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저항이라고 는 생각했다”고 했다.

때문에 웰스 박사는 “대부분의 사람은 satyagraha의 참 뜻을 모른다”고 지적하고, “이 표현에는 본질적으로 영적 의미가 있다”고 했다. 그는 “간디가 폭력을 절대적으로 반대했는데, 이는 폭력이 반영적인 것이고, 압제자의 죄를 반복하는 것이며, 인간의 불행은 더욱 악화시키기 때문”이라며 “이것이 바로 조만식의 입장”이라 했다.

그러나 그는 “당시 한국에서는 폭력(힘)을 사용하지 않는 저항은 ‘약한’ 저항이고, 진짜 저항이 아니며, 일제의 억압을 돕는 것이라고 간주됐다”면서 “이것이 바로, 한국인들에게 비폭력, 비정치적 저항에 관해 설명하는 것, 또한 개신교 자기개조 운동이 단순히 일제에 협조하는 운동이 아니었음을 명제 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이유”라 했다.

한편 케네스 웰스 박사는 현재 뉴질랜드아시아연구소(New Zealand Asia Institute) 연구원이자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에 있는 캔터베리대학(University of Canterbury)의 역사학 명예교수이다. 그는 1995년 호주국립대학(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에서 한국 역사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웰스 박사는 블루밍턴에 위치한 인디애나대학(Indiana University)과 2003년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의 한국 역사 교수로 임명 받은 호주국립대학에서 가르친 경력 있다. 그는 1994년 호주국립대학교 한국학 연구소(the ANU Centre for Korean Studies)와 1995년 대양주한국학회(Korean Studies Association of Australasia)를 설립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그는 UC버클리 대학에서 역사를 가르친 바 있다.

홍은혜 기자

국회의장까지 합쳐도 130석에 불과, 최소 30표가 야당에서 추가로 넘어온 것으로 분석된다.

‘케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 의원 40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찬성표를 던졌고, 사실상 당론 반대 입장을 못 박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서 일부 이탈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민주적 투표를 위해 결정됐기 때문에 국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존중한다”면서

“다만 부적격적 측면이 면피부를 받은 것은 아니다”며 부정적 입장을 거두지 않았다.

하석수 기자

[창조신학칼럼] 현대 의학은 만능인가?

[이기범 칼럼]성찬의 의미

◆의료 행위의 아이러니
1975년 제1회 한국아동문학상을 받았던 ‘몽실언니’ ‘강아지똥’ 등의 베스트셀러 동화로 유명한 아동문학가 고(故) 권정생



창조신학연구소장 조덕영 박사

선생(1937~2007)의 사인(死因)이 사망 10년 만에 결핵이 아닌 다른 문제로 숨진 사실이 뒤늦게 법원 판결로 최근 밝혀졌다. 사인은 의료진들이 부인하던 의료 과실이였다. 1937년 일본 도쿄에서 태어나 1946년 귀국한 후 그 이듬해부터 아동시 일직면 조타리에 정착하고 1968년부터 마을의 교회 문간방에서 종지기를 하며 혼자 살다가 이후 교회 뒤에 오두막을 지어 살았던 권 선생은 1969년 단편동화 ‘강아지 똥’을 발표해 동화작가로서의 삶을 시작했다. 1966년 신장 결핵 진단을 받고 오른쪽 신장을 적출하는 등 오랜 투병을 하면서도 어린이와 자연, 생명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작품을 썼던 모든 독자들로부터 사랑 받던 한국의 귀한 아동 문학 작가였다.

의사가 파업하면 사망자가 급격히 준다는 통계 자료가 있다. 1967년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에서 의사들이 52일간 파업을 하였더니 평소보다 사망률이 35%나 급격히 줄었다. 같은 해 미 캘리포니아 LA에서도 의사들이 파업을 하였더니 사망률이 18%나 감소했다. 1973년 이스라엘에서 의사들이 1개월 동안 파업하였더니 파업 기간 중 사망률은 50%나 감소하였다. 이스라엘에서 사망률이 감소한 경우는 그 20년 전 역시 의사들이 파업했던 때 외에는 없었다. 당시 의사들은 그런 통계가 나온 이유로 고작 “중증 환자를 치료에 전념했기 때문”이라는 변명을 늘어놓았다. 그럼 파업 이전에는 중증 환자는 대충 방치했다는 말인가? 구차한 변명이 아닐 수 없다. 어떤 식으로든 불필요한 의료 행위를 줄인다면 사람들의 사망률을 오히려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정확한 통계자료임이 분명하다.

◆약이 아닌 먹거리를 소개하는 방송

전문 의사들의 아이러니

최근 대중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아주 다양한 건강-의학 관련 프로그램들이 다양한 대중 매체들에 등장하고 있다. 그런데 아주 특이한 현상을 자주 보게 된다. 패넬로 등장하는 소위 의학 전문가라는 양의사와 한의사 간에 동일한 문제 앞에 전혀 상반된 총들이 잦은가하면 의사와 한의사란 분들이 최신 치료약에 대한 정보나 진술은 찾아보기 어렵고 무슨 영양학 강의나 식품 소개나 헬스 트레이너 마냥 운동 요법에 대한 설명으로 일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저명 소아과 의사인 R. S. 멘델존은 미국 의과대학에서 학부 4년 동안 영양학 강의는 겨우 3시간(3학점이 아님) 정도요 그것도 필수 과목이 아니라 (의사 면허 시험에 없는 과목이라) 의대생들이 영양에 대해 전혀 모르는 채로 의사가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 의학 제도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영양학과 식품학을 잘 모르는 의학 패넬들이 소개하는 식품과 영양에 대한 언급을 듣다보면 식품과 영양과 환경과 화학을 전공한 신학자인 필자가 보기엔 TV에 출연하기 위해 저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전 공부를 해서 나올까 안쓰럽기조차 하다.

◆경제적 유익을 따라 발전되어 온 의료 행위

세속 의학은 과학의 발전과 더불어 그 치료법이 점점 더 고도화 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던 결국 현대 의학은 경제적 유익을 위한 쪽으로 만 발달되어 왔다. 좀 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도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치유 방법을 대안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다. 따라서 건강 진단법과 치유 방법은 고도화 되어 왔으나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게 늘어난 것이 사실이다. 의학이 너무 전문 영역이라 대중들은 다른 선택의 여지없이 피동적으로 현대 의학에 의지할 뿐이다.

과거 다양하게 요긴한 치료제로 쓰이던 많은 약제들이 이제는 단순히 제품 단가가 너무 낮아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 하나로 메이저 제약 회사들이 생산을 포기함으로써 많은 환자들이 치료 효과가 뛰어난 값싼 약들을 구하지 못해 고통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라 특별히 가난한 국가들의 고질병(에이즈, 말라리아 등) 치료에 있어 그런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항생제인 페니실린이나 페니실린 내성균에 유용한 메치실린, 암환자 폐렴 치료에 쓰이는 박트람(주사), 결핵치료 2차 약인 사이클로세린, 주정맥 치료제인 프로케인아마이드, 과거에 많이 쓰이던 맥소룡이나 네오마이신(수술전 장내부 살균) 등이 국내에 공급이 잘 안되는 약들이다.

공급이 막힌 이유는 단순하다. 경제적 채산성 때문이다. 해마다 수십 만 명의 환자들이 이들 생산, 수입이 안 되는 특수약품을 구하지 못해 애통 태운다. 의사들도 국내 공급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나 구하지 못하는 요긴한 약들이 1천 종에 달한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들 약들이 없는 이유는 간단하다. 값이 싸 생산의 채산성이 없기 때문이다. 과거 한 때 약이 없어 병원약국에서 직접 만드는 원내제제가 2천여 종에 달하던 적도 있다. 이것이 바로 의료 현실이다.

◆경제적 탐욕은 과잉 진료를 부른다

경제적 유익을 위한 의사의 욕심은 과잉 진료로 이어질 유혹을 뿌리칠 수 없게 만든다. 변호사들이 소송을 권유할 수 있듯이 의사와 고의적으로 환자의 치료 기간을 과도하게 연장하거나 환자를 창출할 수 있는 직업이다. 여기에도 경제적 유익을 위해 도덕성이 결여된 의사의 과잉 진료나 철저하게 환원론적 기계론적 사고에 사로잡힌 의사의 과잉 의욕이 폐단으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저선량(低線量) 컴퓨터 단층 촬영(LDCT) 검사’를 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위양성률(암이 아닌 데도 암같이 보이는 비율)에 대한 한 보고의 경우 LDCT 검사를 거쳐 폐암이 의심돼 흉강경 또는 개흉 수술까지 실시한 사람의 18~28%가 폐암이 아니었다는 통계가 있다.

더욱 심사숙고하여 노련한 진료와 진단 계획을 진행하기를 전문 의사들에게 바라는 것은 무리일까? 철단 기계도 이렇게 오류가 많다는 것을 전문가가 아닌 일반 환자들은 먼저 알아야 한다. 문제는 이런 ‘과잉 진단’이 쓸데없는 내시경 검사, 항암제 투약과 수술, 방사선 치료 등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 피해는 경제적 부담과 함께 고스란히 환자들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핀란드 정부는 40대 초반의 관리직 공무원 1200명을 정기검진과 함께 영양 상태, 운동, 금연, 금주 등 건강생활을 철저히 지키게 한 그룹(A)과 그렇지 않은 그룹(B)으로 나눠 15년간 비교, 관찰 실험을 한 적이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심장 혈관 질환, 고혈압, 암, 각종 사망률 등의 모든 항목에서 B그룹이 A그룹보다 좋게 나왔다. 심지어는 와병 비관 자살률까지도 낮았다. 이것이 ‘핀란드 신드롬(증후군)’이란 의학용어이다.

원인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철저한 검진에 따라 나타난 건강 이상에 대한 스트레스가 면역력을 떨어뜨린 경우였고, 다른 하나는 각종 투약이나 시술에서 오는 부작용이 치료 효과보다 더 컸기 때문이었다.

◆예수님은 지극히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이 경제적 고통 없이 치유 받고 자유함을 원하신다

예수님은 늘 약자의 편이셨다. 그는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 나사렛의 서민들과 함께 하셨으며 그들을 영육 간에 치유하였다. 그들은 예루살렘 사람들과 달리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때로는 귀신들리고 문둥병과 같은 치명적 질병을 지닌 서민들이었다. 오죽하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되물은 예수 제자도 있지 않았는가.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예수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 제자들이 지극히 가난한 자들과 어울리고 그들이 경제적 고통 없이 치유 받기를 원하신다. 바로 교회가 그 같은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반대로 오늘날 교회는 얼마나 갑질의 교회가 되어버렸는가.

성경적 전인 건강론은 일반 계시와 은총으로서의 현대 의학의 공헌을 일정부분 인정하지만 창조 신앙의 관점에서 반성할 부분을 찾는 데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 그 핵심은 연약한 자들이 어떻게 하면 물질적, 정신적, 심리적 큰 고통 없이 자유함을 누리고 치유 받을 수 있느냐에 집중해야 한다. 그런 치유받이 있는가? 그런 국가적 제도적 장치는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가. 그런 것들이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하기에 거듭난 성경적 창조 신앙에 대한 관심을 통해 앞으로 이런 하나님의 바른 참살이 운동이 일어나고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삶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요6:53-56)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어떤 마음 가짐으로 성찬에 참여하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사람의 행복은 관계의 질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으면 행복하고, 관계가 나쁘면 불행합니다.

이 모든 관계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외로운 사람을 위로해주시니

힘 없는 사람에게 힘을 주십니다. 기쁨 없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도 주십니다.

성령님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죄를 뉘우치는 사람에게 용서해주시니

다.

불안한 사람에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명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 안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원하지 않든,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영원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진 상태가 지옥이고, 하나님과 가까워진 상태가 천국입니다.

가을이 오고 추워지면 잎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봄이 오면 새싹이 돋습니다. 꽃이 필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사람에게 봄이 오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분과 변하지 않는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이지요.

우리의 문제는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고, 그 신호로 몸이 아프고 병이 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는데, 우리를 다시 살려내어 주님 나라에서 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성찬식은 이런 주님의 사랑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예식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계획에 내가 동참하겠다는 서약이기도 합니다.

성찬에 참여한다는 의미는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나를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달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에 감사한다는 뜻도 됩니다. 내가 죄인이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뻐한다는 의미도 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과 현실에 살고 있는 내가 하나가 된다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우리 몸에 음식이 들어오면 살이 되고 피가 되어 에너지를 얻듯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먹으면 주님은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고,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신비로운 일이지요. 이 성찬에 참여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서로 한 형제자매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한 가족입니다. 가족은 팬티만 입고 돌아다녀도 흉보지 않습니다. 가족이란 부끄러운 모습도 수용하고,

어떤 허물이나 잘못도 용서해주는 것이 가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에게 어떤 성실함이나 거룩함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살이 찢겨지고 피가 쏟아지는 그 고통을 참으신 예수님의 희생 덕분에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참여합시다.

[권준 목사의 아침편지]참 평화가 필요한 영혼들에게

지난주 삼 일간 한국에서 집회로 섬겼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북한이 미사일을 하루건너 한 개씩 쏘아대 전쟁이 난다 안 다 매일 외신은 떠들어 대지만 이곳의 사람들은 거의 관심조차 없이 산다는 것입니다.

물건을 사 재는 사람도 없고 그것 때문에 하러던 것을 미루는 사람도 없고

주식도 계속 오르고 있고 외국 사람들은 이러한 현상이 아주 불가사의 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불감에 가깝게 살고 있는 현실이지만 진정한 평화가 없는 사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신앙이 다음 세대로 흘러가지 못하고 있는 사회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으면 담대할 수 있고 폭풍이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방에 적이 둘러싸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있으면 단장을 잘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없음에도 두려움 없이 산다는 것은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과연 누구를 믿기에 이렇게 답답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냥 포기하고 오늘을 즐기려는 것일까?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시기임에도 그 길을 모르고 있는 이 백성이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다음 주는 형제교회의 4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형제와 제가 해마다 다짐하며 마음에 새기는 것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며 복음을 잘 지키고 전

하자는 것입니다. 급변하는 이 시대에 우리의 유연함이 더욱 요구되는 때입니다. 요즘 시대의 교회를 바라보면 성난 파도 위에 떠 있는 배와 같은 모습입니다. 어떻게 바깥의 오염 물질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지키며 배 바깥의 사람들을 건져올릴 수 있는가를 늘 고민하며 하루하루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야 하는 것이 지금 교회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지는 이 시대에 형제와 제가

감당하여야 하는 사명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느낍니다. 전쟁의 소문이 곳곳에서 나고 폭풍과 홍수가 땅을 덮어오는 이 시대에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고 참평화와 안전은 하나님의 품이라는 사실을 열방이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형제와 제가 그 일에 조금 더 힘을 내기 바랍니다. 이때를 위해 우리를 준비시켜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오늘도 복음의 길이 더 열리기를 형제와 제가 기도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정사업본부
KOREA POST

우체국 예금에서 우리 모두를 위한 미래의 꿈을 함께 하겠습니다.

똑똑한 금융

우체국으로 시작하자!

더 스마트해진
우체국 예금

